

한국의 북방지역유적지 발굴조사 개황
(韓國의 北方地域遺跡地 發掘調査 概況)
-특히 국토분단이후기의 북한, 중국동부지역, 및
시베리아 일부지역에
(特히 國土分斷以後期の 北韓, 中國東部地域, 및
시베리아 一部地域에 關(關)하여-

梁 泰 鎮
<北韓學會 理事>

目 次

- | | |
|------------|---------------|
| I. 머리말 | VI. 철기시대 |
| II. 구석기시대 | VII. 유적발굴조사년표 |
| III. 중석기시대 | VIII. 맺는말 |
| IV. 신석기시대 | 참고문헌 |
| V. 청동기시대 | |

1. 머리말

국토분단이후 우리는 북방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유적에 대한 답사는 물론 학문적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약성이 얼마나 완화 내지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단민족의 통합을 위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민족공유의 문화유산인 역사적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 유적의 공동발굴 내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사 연구에 진척을 기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8·15 광복이후 북한지역 내에서의 유물·유적 발굴상황과 인접지역인 만주 및 시베리아 일대의 접경 부근 발굴상황을 개괄해 봄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고를 작성해 본 것이다.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한 주요 참고문헌들로는 중국측 발간물인 <고고통신(考古通

訊)> <문물참고자료>, 일본의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 <동북아시아 고고학 연구(東北 아시아 考古學 研究)> 그리고 북한측 자료인 <문물참고자료(文物參考資料)> <역사과학>을 비롯한 여타 유물유적발굴조사보고서 등이다.

본고의 기술체계는 북한지역의 발굴상황을 1945년 국토분단이후에서 70년대 이전까지 비교적 북한측이 유물유적 발굴에 치중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타지역은 각각 시대별로 관련사항들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시기구분은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나누었고 연대상으로는 주로 삼국시대 이전으로 한정하였다.

2.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 발굴상황

1945년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으로는 1966년에서 1968년에 걸쳐 발굴한 평양인근의 상원군 검은 모루(상원군(祥原郡) 흑우리(黑隅里)) 유적지가 있다.

이 유적은 대체로 60만년에서 40만년전의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다. 이 유적지는 상원군 남쪽 3km 쯤에 있는 석회암 언덕바위 비탈진 동굴안으로, 동굴의 길이는 약 30m가량으로 이 동굴속에서 여러종류의 짐승뼈와 석기류등이 발견되었다.

석기류로는 주먹도끼 모양의 석기, 사다리꼴 형의 석기, 끝이 뾰족한 것들로 석재(石材)는 규석(矽石) 석회암(石灰巖)이다.

이들 석기는 모양이 구석기시대 전기의 것을 연상시키는 것들로 대체로 40만년 전부터 15만년전까지의 유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것이다.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은 복숭아 모양의 도끼로 등쪽은 자연 그대로이거나 혹은 손에 쥐기 좋게 다듬고, 날쪽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로 양쪽면을 타제한 것이다.

등쪽을 손에 쥐고 날로 땅을 파거나 다른 물건을 자르거나 찍는데 사용한 주먹도끼는 당시로서는 만능적인 도구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석기였다.

검은모루에서 발견된 석기는 그 생김새가 주먹도끼와 비슷할 뿐이지 주먹도끼처럼 양쪽면을 손질한 것은 아니고 돌의 원래 형태로 사용한 것들이다. 이 석기들은 주먹도끼를 사용하던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쓰던 것으로 석기의 양옆 날 부분과 뾰족한 끝부분에 사용할 때에 무디고 떨어져 나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주먹도끼를 사용하던 시기와 비슷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석기가 있는데 이 도구는 구석기시대 전기에 어떤 물건을 찍거나 자르는데 쓰인 찍개를 연상케 되는데 손잡이 부분이 등쪽은 들자체 그대로이고 날도 한쪽면만 손질한 것으로 이 사다리꼴형 석기는 찍개의 원조(元祖)라고 할 수 있다.

끝이 뾰족한 석기는 생김 모양은 몽실한데 날 부분과 뾰족한 끝을 이용하여 땅을 뚫거나 물건을 자르거나 찍는데 사용하던 도구로 보인다. 이러한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얼핏보아서는 자연석과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밖에 29종에 달하는 각종 짐승뼈의 화석들은 물소, 원숭이, 코끼리, 들쥐, 멧돼지, 승냥이, 곰, 말, 큰뿔사슴 등의 뼈들이다.

이들 뼈들은 대체로 60만년전에서 40만년전의 것으로 보인다.

상원군 상원읍의 검은모루유적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용곡리에서도 검은모루유적지의 유물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인골화석 수점과 이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십점의 석기와 수천점에 달하는 동물뼈의 화석들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함경북도(咸鏡北道) 옹기군(雄基郡) 굴포리(屈浦里)에서 발굴된 굴포유적과 평양시 력포구역(力浦區域) 대현동유적, 평안남도(平安南道) 덕천군(德川郡) 승리산(勝利山)유적, 평양시 승호구역(勝湖區域) 화천동(貨泉洞) 동굴유적등이 발견되었다.

굴포에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거처한 것으로 보이는 막자리와 이들이 쓰던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막자리에는 석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돌모루와 석기제작과정에 깨진 돌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석기들의 대부분은 차들로 만들어졌다. 석장리유적의 구석기시대 중기문화층에서는 모루들과 돌망치 석기조각들이 나왔는데 이 석기들은 굴포유적 유물과 비슷한 것들이다.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견된 인골은 앞머리뼈, 웃머리뼈, 옆머리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7~8살 되는 아이의 것이었다. 평남 덕천군 승리산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두 개의 치아가 나왔다. 하나는 오른쪽 아래턱의 첫째 어금니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 윗턱의 둘째 어금니의 것이다.

평양시 승호구역(勝湖區域) 화천동(貨泉洞) 유적에서 발견된 것은 불무지 자리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은 함경북도 옹기군(雄基郡)(현 ; 선봉군(先峰郡)) 굴포리에서 나온 굴포유적 제2기층유적과 부포리(鮪浦里)유적 그리고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유적의 위문화층으로 4만년 내지 3만년 전 것이다.

3. 중석기시대

중석기시대라 함은 대략 1만 4천년전 이후부터 기원전 5천년대 까지를 포괄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의 유물의 특징은 소형 타제석의 세석기류(細石器類)가 사용되었다.

석기의 석재는 부싯돌과 같은 석질로 매우 단단한 돌로 크기는 1cm~2cm 정도의 것으로 삼각형, 사다리꼴, 반달형 등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것들이다. 이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옹기군(선봉군) 부포리유적에서 나온 일부 유물과 은성군(穩城郡) 지경동유적에서 나온 타제석기들을 들 수 있다.

지경동유적에서의 발굴물은 부싯돌을 주축으로 한 검정유리돌이다. 생김새는 동글납작하거나 좁고 길쭉한 격지의 것들과 비슷하다.

이 시기의 유적들은 중국황하 지류인 낙하(落河) 하류의 사원지방과 광서성의 일부지역에서도 나왔다.

사원유적은 섬서성의 남쪽 조읍현과 대련현 사이에 있는 사원지방에서 발견되었다. 무려 15개처에서 발견된 사원유적의 세석기들은 그 크기가 8cm~9cm 정도 되는 중형석기가 많은데 대부분 정밀하게 가공한 뾰족한 석기들이다. 광서성일대의 중석기시대 유적은 퇴적층에서 발견되었는데 각종 동물의 화석들과 함께 자갈들로 만든 직경 10cm 정도의 망치, 굵개와 사슴뿔로 만든 골각기 등이다.

4.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유물 유적은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유적 제1기층과 제2기층, 부포리의 덕산유적, 평안남도 은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아래문화층,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유적 제1지구문화층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서포항유적 제1기층과 덕산유적은 기원전 5000년 내지 4000년대 전반기에 속하며 궁산유적아래문화층과 지탑리유적 제1기층, 서포항유적 제2기층은 기원전 4000년대 후반기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포항유적 제1기층에서는 이 시대의 집자리가 나타났는데 집자리는 동서 길이 약 12m 남북 길이 6m로 모가 두드러지게 나지 않은 장방형의 움집자리이다.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과 강 자갈을 섞어 다진 후 불을 놓아 구웠고 기둥은 집자리 바닥에 구멍을 뚫고 세운 것이 아니라 집자리 바닥위에 그대로 세웠다. 집자리에서는 5개의 화독자리가 발견되었다.

서포항 유적 제1기층 덧 쌓인 층에서는 돌과 뼈로 만든 여러종류의 도구들이 출토되었는데, 석기로는 쟁이, 활촉, 그물추, 칼, 굽개, 망치, 숫돌이 나왔고 뼈로 만든 것으로는 창끝, 작살, 칼, 삿바늘, 찢개살, 송곳 등이 나왔다. 특기할 것은 돌쟁이가 3점이 나왔는데 모두 돌을 거칠게 깨뜨려 만든 것으로 날부분에 갈라진 흠과 굽힌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유적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함께 장식물들도 나왔다. 이 모두가 짐승뼈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구멍을 뚫어 달아맬 수 있게 하였다.

유적에서는 질그릇들도 나왔는데 이들 종류, 생김새, 무늬장식 등의 갖춤새가 단조롭게 되어있다.

그릇들은 바탕 흙에 모래를 섞어 만들었으며, 일부는 모래와 조개껍질 가루를 섞었다. 질그릇의 겉면은 굽기 전에 잘 다스리지 않아서 거칠고 색깔은 검은 갈색을 띠고 있다. 겉면에는 4~6가닥의 점살빋으로 눌러서 새김무늬를 냈다. 즉 여러개의 살이 있는 무늬 돌치개로 눌러 낸 점선들로써 무늬를 이루었는데 그릇의 윗부분에 많고 밑부분에는 거의 무늬를 새기지 않았으며 그릇의 밑부분은 납작하다.

이상의 질그릇들을 만든 솜씨는 매우 서툴지만 처음으로 질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형태는 어느 정도 세련되어 있고 무늬가 단조롭기는 하지만 규칙성을 띠고 있다.

서포항유적 제1기층에 나타난 유적은 당시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질그릇을 만드는 일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서포항 유적과 관련된 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사냥술에도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어업, 수렵도 하면서 한 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발견된 집자리와 새김무늬그릇들은 그들의 이러한 정착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이 시기의 집자리 유적들을 보면 보통 땅바닥을 50~100cm씩 파고 지은 움집이었다. 집자리들의 평면구조는 대체로 둥근 것과 네모난 것들인데 집자리 가운데는 강돌을 둘러놓은 화독이 하나씩 있고 화독 곁에는 집그릇을 거꾸로 묻어 저장음을 만든 것이 있다.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을 5~10m 정도로 펴고 다진 다음,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다. 집자리에서는 기둥을 세웠던 구멍자리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집의 바깥 모양은 원추형에 가까운 고깔지붕으로서 지붕과 벽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집자리에서 나온 유물들은 신석기시대 초기의 유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전한 것들이었다. 즉,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술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유적에서 나온 발굴물로는 쟁이, 뚜지개, 갈들, 활촉, 창끝, 찢개살, 그물추, 칼날, 도끼,

숫돌, 송곳, 삿바늘, 닭음돌, 무늬돌치개 등이다.

서포항유적 제2기층에서는 크고 작은 돌팽이가 10점이나 나왔고 사슴뿔로 만든 뿔팽이는 13점이나 나왔다.

같은 시기의 궁산문화 제1기층에 속하는 유적들에서도 동종의 뿔팽이 및 뚜지개가 나왔다. 지탑리, 궁산유적에서는 갈들판과 갈들대가 여러점 발견됨으로서 농업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돌로 만든 활촉들은 그 모양에 따라 대체로 버들잎모양 활촉과 밀변이 오am라든 나래가 있는 두 종류의 활촉이 보인다.

뿔을 갈아 만든 활촉, 물고기 잡이용 작살, 찰개살, 그물추, 홀리개, 도끼류 등도 발견되었다. 질그릇의 바탕흙에는 모래를 주로 섞었고 간혹 석면이나 활석 조개껍질가루, 운모가루를 섞은 것들이 나온다. 질그릇의 생김새도 다양해져서 밑굽이 납작한 것과 뽕족한 것이 있으며 종류에 있어서도 독, 항아리, 단지, 바리, 보시기, 잔 등이 있고 질그릇의 겉면은 새김무늬로 장식을 하였는데 그 새김수법에 따라 여러줄의 점선띠나 사선 그리고 전나무잎 모양의 무늬를 눌러서 낸 무늬, 그리고 그어서 낸 무늬와 배합한 것 등이 있다.

궁산유적 제1기층에서는 가락바퀴로 뽑은 가는 실을 바늘에 꿰어 놓은 것이 나왔으며 바늘귀에 달린 실은 야생삼을 가지고 뽑은 베실로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식물재배를 통해 그 특성을 알게 됨으로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비하여 보다 광활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서쪽의 요하구역, 동쪽의 연해주지방까지 펼쳐져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북한 지역의 대표적 유적지로는 궁산유적, 지탑리유적,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제1기문화층, 평안북도 영변군 세죽리유적 집자리, 황해도 은천군 학월리유적, 함경북도 회령군 검은개봉유적, 서포항유적 제3기층, 중국의 요동지방 사포자촌 이장자촌, 남옥천 유적들과 연해주지방의 유적들이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평면구조에서 네모 또는 장방형으로서 보다 규모가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적지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보이던 원형의 집자리들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움집이기는 하나 움의 깊이가 훨씬 얕아졌고 평면구조의 집자리들은 대체로 지붕이 양면 경사를 이루고 벽체와 지붕이 점차로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진 것이었고 집안에는 화독자리들이 있었는데 돌을 가지고 시설을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저장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물들로는 도끼, 자귀, 끌, 대패 등을 들 수 있는데 자귀, 끌, 대패는 신석기시대 중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유물들은 대체로 마제식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팽이 이외에 보습, 낫 등이 농업용 도구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습은 지탑리유적에서 나왔는데 점판암을 다듬어서 길이 30cm~40cm가 되게 만들었으며 큰 것은 길이가 65.5cm에 넓이 24cm나 된다.

낫은 지탑리와 궁산유적지 두 곳에서 다 같이 나왔는데 지탑리의 것은 돌로 만든 것이고 궁산유적의 것은 돼지이빨로 만든 것이다. 궁산유적에서 나온 뼈로 된 낫은 자루에 비껴어 매기 위하여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보인다. 이 시기에 질그릇의 종류면에서는 별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형태와 무늬등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몸체가 둥그스름한 단지와 그릇 몸체에 자그마한 고리손잡이가 붙은 그릇이 보이며 질그릇의 바탕

흙도 활석과 감탕흙에 보드라운 모래를 섞고 있다.

무늬장식면에서도 점선물결무늬, 타래무늬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늬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점선물결무늬는 궁산유적 제2기, 제3기 유적층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나타나고 있던 점선무늬를 물결모양으로 가일층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끈은 선으로 된 띠무늬를 그릇 입주둥이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로돌린 다음, 그 사이 사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채워 넣어 장식한 그릇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타래무늬는 서포항유적 제3기층 유물 가운데 처음 나타난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문화가 가장 발전한 때의 유물로는 금탄리유적 제2기층, 황해도 해주시 용당포유적 제4기층, 제5기층,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 청동말래, 용연리 쌍학리유적, 정주군 당산유적, 철산군 도봉리유적, 의주군 미송리유적, 중강군 토성리 장성리유적과 중국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유적 제1기층을 비롯한 장산열도의 유적, 만주지방의 조원망해둔유적, 연해주의 글라드까야유적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두드러진 변화의 발전이 보이는데 평면윤곽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단일화되어 가며 규모는 작아져 있다.

집자리들의 깊이도 훨씬 얕아지고 바닥에는 진흙을 깔았는데 불로 구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변화는 이 시기의 전기나 중기에는 없던 현상들이다.

금탄리유적 제2기문화층과 청동말래유적지 등에서는 도끼날이 빼뜯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청동기시대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중국 쌍타자유적 제1기층에서는 가로 자름면이 방형에 가까운 것과 장방형의 네모형 도끼들이 출토되었는데 제작술의 성숙도를 보여 주고 있다. 자귀들도 범의구석유적 제1기층, 서포항 유적 제4기층에서 나온 것처럼 날이 조개모양으로 휘었으며 날의 한 면은 밋밋하게 갈고, 다른 면은 경사지게 갈아 깎날을 이루게 한 독특한 생김새의 것이 나왔다.

이 시기의 범의구석유적에서는 곱배괭이(정자형(丁字形))가 23점이나 나왔는데 이는 돌보습이 없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나무로 된 후치가 쓰여졌기 때문이다. 곱배괭이는 종래의 돌괭이에서 자루와 날이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괭이에 비해 보다 쓸모 있는 도구이다. 반달칼(반월도(半月刀))도 제작되었는데 이는 곡식을 자르는 도구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곡식수확량이 많아졌음을 시사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달칼은 이 시기에 마제 및 구멍을 뚫는 석기가공기술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중국의 쌍타자유적 제1기층에서는 곤봉 대가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생김새에 따라 달도끼, 또는 별도끼라 부르는데 달도끼는 납작하고 둥근 들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밖의 가장자리에 날을 세운 석기로서 가운데 뚫린 구멍에 자루를 꽂아 쓰게 되어 있다. 후기 신석기시대유적들 가운데는 질그릇의 종류와 생김새 무늬 등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저장용기, 화식용 그릇, 식기류 등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같은 저장용 그릇인 항아리 단지도 독에 가까운 크기의 것으로부터 자그마한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 각색의 유형들이 나타난다.

질그릇의 밀창 변화도 심해 그릇의 굽이 명확해지고 밀창이 들린 이른바 빠리굽이 많아지고 있다. 빠리굽그릇으로는 청동말래유적에서 나온 항아리와 그릇, 그리고 농포리유적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는 접시들을 들 수 있다. 질그릇의 결면 장식무늬가 다양해지면서 이 시기에 번개무늬가 새롭게 나타난다. 번개무늬란 들 또는 세 개의 줄 띠와 평행 선상에 점이나 사선을 채운 띠를 돌려감아 여러 모양의 사각형 무늬도안을 한 것을 말한다. 사각형의 두 선의 내각이 90°인 방형(方形)의 번개무늬도 있으나 대부분은 능형으

로 된 번개무늬이다.

신석기시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로 팽이가 보습으로 바뀌고, 가축을 길렀으며 바다와 강가에서는 어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시기는 모계씨족제도가 형성되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입증하는 유물이 서포항유적과 농포리유적에서 나온 여성조각상이다.

중국에서의 신석기문화는 황하중류와 하류지구의 창가유역으로 이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것은 황하중류와 하류지역에서 발전한 양소문화(仰韶文化)와 이를 계승 발전시킨 용산문화(龍山文化)였다. 양소문화기(仰韶文化期)는 일명 채도문화(彩陶文化)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신석기시대로 이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황하유역인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일대와 감숙성 일부, 만주지역 일부이다.

이 일대는 황하와 그 지류기슭인 넓다란 황토지대이다. 이 황토층 밑에 묻혀 있는 유적의 범위는 10만㎡가 보통이고 제일 큰 것은 92만㎡에 달하는 것도 있다. 문화층도 매우 깊어 4m~5m 가량 된다.

주된 유적은 집자리로 집자리의 평면윤곽은 둥근 것과 네모난 것의 두 종류이다. 이들은 모두 움집으로 바닥을 깊이 파고 진흙매질을 했으며 벽은 흙으로 쌓은 다음 진흙으로 매질하였다. 집안에는 화독자리가 있고 원추형으로 간략한 초막들이다. 집자리 주변에는 질그릇을 굽던 가마터와 곡식을 저장하던 저장구덩이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돌도끼, 대패날, 돌보습, 반달칼, 돌칼, 활촉 등의 사냥 도구와 뼈로 만든 활촉, 낚시, 바늘, 송곳, 가락추 등이다. 이 일대 유물의 특징은 질그릇으로 구운 온도가 섭씨 1000도 내외로 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유물은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한 지대와 안가라강 유역이다. 이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은 대부분 타제석기로 마제석기는 매우 드물다. 마제석기라고 하여도 반마제석기이다. 타제석기 제품들은 대부분이 부싯돌로 만들었는데 활촉, 낫개, 칼날, 창끝이며 골기(骨器)로는 창, 팽이, 낚시, 바늘 등이 발견되었다. 질그릇은 밑이 둥근 팽이 모양의 것이 많은데 그다지 크지는 않다. 무늬는 그릇의 주둥이 부분에 만 손톱무늬로 드문드문 장식한 것으로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는 차돌, 깨들가루를 섞어서 만들었다.

안가라강 유역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무덤이 강기슭에 많이 있었다. 집자리들의 평면구조는 둥글고, 원추형의 집들로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웠고 여름에는 나무껍질을 덮었다. 이 시기 주민들은 짐승을 쫓아, 또는 계절을 따라, 자주 이동함으로써 집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였다.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매장 방법은 여러장의 판석으로 덮였고 사용했던 물건도 함께 묻어 주었다. 따라서 남자의 무덤에서는 무기와 돌도끼가 주로 발견되었고 여자의 무덤에서는 바늘과 바늘통들이 발견되었으며 때로 일부여자의 무덤에서도 활과 화살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밖에 원시적 신앙물로는 돌로 물고기를 조각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각은 도식적이기는 하나 묘사가 분명하다. 이는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신앙행위로 보여진다. 특징적인 것은 녹색연옥을 이용하여 석기를 만들었는데 이 돌은 안가라 지방이 원산지이다. 연옥은 석질(石質)이 매우 단단하여 석기로서 매우 오랫동안 쓸 수 있었다.

5. 청동기시대

이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오늘날의 요동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신석기시대 문화를 계승한 청동기시대문화를 향유하였는데 주변의 여타 국가와는 달리 독자적이며 독특한 문화를 이룩하였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평안북도 용천군 쌍하리유적, 정주군 대산리 당산유적, 중국 요동반도 북쪽의 심양시 철서구 조공가유적, 요동반도 남쪽의 쌍타자 제2기유적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동해안지방의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유적의 제6기층, 회령군 오동유적의 제1기층도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 마지막 시기의 것들이 혼용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도끼, 끌, 대패를 비롯하여 곰배쟁이, 반달칼, 활촉, 창끝, 곤봉대가리 같은 도구와 무기류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이 시기 유물의 하나인 질그릇무늬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널리 보급되었던 새김무늬가 보이는데 그 실례가 평안북도 정주군 대산리 당산유적 발굴품과 용천군 쌍하리 유적의 질그릇들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분포지역은 평안남도 대동강유역의 평양지방을 비롯한 서북지대,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우리나라 동해안 연안과 두만강유역 그리고 중국의 요하유역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발굴지로서는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의 것으로 보이는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제3기층, 영변군 세죽리 제2기층, 용천군 신암리 제2기 및 제3기층, 강계시 공귀리, 중강군 토성리, 시중군 심귀리 유적, 무산군 범의구석 유적 제2기층, 중국의 쌍타자유적 제3기층 등이다.

이들 유적들의 대부분은 집자리들과 고인들을 비롯한 무덤들로 이곳에서 청동기제품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먼저 사동구역 금탄리유적에서 나온 것으로 청동끌, 요동반도 남쪽 대대산유적에서 나온 청동송곳, 용천군 신암리유적과 만주 길림 동산두움 무덤에서 나온 청동손칼이 있다.

이밖에도 황해도 사리원시 상매동과 은천군 약사동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청동활촉이 나왔다.

청동제 장식품으로는 방울, 가락지, 달아매는 장식품, 팔지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장식품의 출토지는 황해도 봉산군 신흥동유적, 용천군 신암리유적, 동산두움무덤, 나진시 초도유적지 등이다. 그리고 청동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거푸집도 나왔는데 요동반도 남쪽 상마석유적지에서 나온 낚시거푸집은 하나의 실례이다. 이처럼 청동제 유물들과 거푸집들이 거의 모든 유적들에서 나오는 것은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선조들이 살던 모든 지역에서 청동기문화가 전반적으로 보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사냥도구와 구별되는 무기의 제작을 들 수 있다. 무기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종래의 활촉보다 훨씬 크고 그 무게가 2~3배나 되는 것을 비롯해 뿌리나래활촉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먼거리의 적을 제압하거나 목표물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농기류로 돌쟁이, 뼈쟁이들과 함께 굳은 나무로 만든 보습이나 후치 같은 것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평안북도 철산군 주의리 이탄(泥炭)층유적에서 나온 기원전 8~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보습이 달린 후치가 보인다. 쌍타자유적 가운데는 기원전 3천년대 말기로 추정되는 이 유적의 제1기층에서 반달칼이 5개, 기원전 2천년대 전반기로 보이는 제2기층에 18개, 기원전 2천년대 말기 것으로 보이는 제3기층에서 66개가 나왔다.

이같은 쌍타자유적의 반달칼 출토량은 이 시기에 곡식수확량의 증산비율을 나타낸 징후

라 하겠다.

이 시기에는 조, 기장, 수수, 콩 등 5곡이 재배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같은 실례는 평양시 삼성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에서 나온 5곡유물들로 알 수 있다.

입석리유적,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등지에서는 기원전 1천년대 전반기 유적들 가운데 나온 소뼈들을 통해 볼 때, 기원전 2천년기 말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소를 길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 유적들에서 나무보습이나 후치가 나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소를 농경용 가축으로 사육했음을 알 수 있다.

신흥동유적에서는 석전(石錢)이 발굴되었는데 이 석전은 석기제작원료로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물교환수단(物物交換手段)으로도 이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나진시 초도유적에서는 청동방울이, 응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는 뼈피리가 나왔다. 이 청동방울과 뼈피리는 이 시기의 음악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무산 범의구석유적의 돼지, 조소품과 사람조각품, 서포항유적의 인형조각품 연결 소영자무덤에서 나온 인형조각품들은 이 시기 조각술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하겠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고인돌과 석곽분묘인데 고인돌은 북부 산간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산재해 있다. 그 수효는 보통 5~6기 또는 10여기를 단위로 100여기 또는 200여기 씩 무리로 모여 있다.

이 시기에 부부를 합장하는 매장 풍습이 나타나는데 그 실례로 연길의 소영자무덤, 함경북도 회령군 검은개봉움무덤, 길림 동산두움무덤, 침촌형고인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평안북도 영변군 송강리(일명 세죽리), 박천군 단산리, 북창군 대평리, 의주군 미송리, 용천군 신암리, 그리고 요동반도 남단의 윤가촌등지이다. 이들 집자리의 형적은 기원전 1천년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세죽리유적의 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이 유적지의 제2기층과 제3기층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2, 3기층의 집자리들은 장방형으로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형식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2기층의 집자리에는 화독자리가 하나이고 집자리의 움 깊이가 더 깊지만 3기층의 집자리에는 화독자리가 둘이다. 이 두 집자리에서 나온 질그릇들은 모두 갈색그릇이기는 하나 2기층의 것은 미송리형 질그릇이 주류를 이루고 3기층은 묵방리형 질그릇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윤가촌유적의 집자리나, 기타 유적의 집자리들은 대체로 반움집 또는 거의 지상가옥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서로 비슷하다.

무덤유적으로는 돌무지무덤과 고인돌 돌상자무덤이 기본이고 움무덤이 일부 보인다. 돌무지무덤은 막돌을 가지고 만든 돌무덤인데 주로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형식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상무덤, 누상무덤, 동가구 와룡천무덤이다. 강상무덤은 바닷가 언덕위에 있는데 동서 약 28m, 남북 약 20m가 되는 큰 무덤이다. 누상무덤은 강상무덤보다 더 커서 동서 34m, 남북 24.2m나 된다. 두 무덤은 다같이 여러개의 무덤구덩이들로 이루어진 집체무덤이다.

강상무덤은 중앙의 제일 높은 곳에서 판석으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3구의 시신을 묻었으며 이 무덤을 중심으로 주위에 22개의 무덤구덩이를 만들고 한 구덩이에 2~3명, 많은 데는 18명까지 묻어 모두 144구의 인골이 매장되었던 곳이다.

누상무덤은 파손이 심해 잘 알 수 없으나 주인공의 무덤은 판석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나머지 시신들의 것은 한 구덩이에 여러명씩 매장되어 있다. 돌무지무덤과 함께 이 시기에는 움무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윤가촌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여러개의 움무

덤이 나타났는데 비교적 훼손이 적은 무덤은 남북의 길이 1.6m 동서너비 0.3m~0.7m 정도이다.

고인돌로서 대표적인 것은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무리를 들 수 있다. 묵방리의 고인돌은 침촌형고인돌이 주축이 되고 있다. 무덤속에서는 질그릇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나왔다.

돌상자무덤으로 대표되는 것은 무순시 대화방 무덤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질그릇과 버선코모양의 청동도끼등이 출토되었다.

이 시대의 유물들을 대분해 보면 무기류와 마구의 수레부속, 장식류로 나눌 수 있다. 무기류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비파형단검이다. 비파형단검에는 전형적 비파형단검과 변형의 비파형단검이 있다. 그리고 비파형의 창, 버선코 모양의 도끼, 청동 및 돌로 만든 활촉 방패 등이 있다.

무기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물은 수레부속품과 마구류이다. 여기에는 청동으로 만든 반원형의 수레부속, 일산꼭지, 말자갈, 청동방울 등이 있다. 장식물로는 단추, 거울, 투각제품, 동물장식품들이 출토되었다.

중국에서의 청동기유물은 집자리, 궁전건물터, 분묘 속의 출토물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하남성 정주 이리두락달묘의 궁전터와 촌락지, 산서성 하현의 동하병의 성곽지 등이다.

하남성 안양현 소둔 은허유적지에서는 궁궐터, 저장구덩이, 각종 공구, 무기류들이 나왔는데 특기할 것은 복골과 갑골문자의 출토이다. 이 시기의 무덤들은 움무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순장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안양 무관촌에서 발견된 움무덤에는 남북길이 14m, 동서길이 12m, 깊이 7.2m인 묘실과 남, 북에 각각 길이 15m, 폭 5m~6m되는 연도가 있다.

묘실중심부에는 길이 6.3m, 폭 5.2m, 높이 2.5m되는 목판이 있는데 이것이 묘 주인공의 것이다.

순장된 인골의 수효는 79명이며, 수레와 말(마(馬)), 청동제 그릇 및 장식품들도 출토되었다. 이밖에 도시유적으로는 서안부근의 호경유적, 낙양부근의 하남성유적이 있다. 시베리아지역의 청동기유물은 미누신스크부근의 아파나씨예보산에서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강가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무덤들로 이 무덤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씌우고 돌로 테두리를 돌려 쌓은 것과 봉토 없이 돌로 테두리만 쌓은 것이 있다.

이들 묘에서 나온 대표적인 청동제품으로는 칼이다. 예니셰이강으로부터 우랄지방사이의 광활한 지역에는 집자리와 묘자리가 널려져 있는데 출토품으로는 단검, 낫, 도끼, 칼, 망치 등으로 이 가운데는 돌호미, 돌칼도 섞여 나왔다.

예니셰이강 상류 미누신스크시 부근의 가라스끄강 기슭에서 청동야금기술의 발전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광산(銅鑛山)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깊이가 20m되는 굴로 굴속에는 불에 몹시 탄 돌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채굴한 청동으로 칼목이 구부러진 청동제칼, 귀고리, 가락지 등 여자용 장식품도 출토되었다.

6. 철기시대

북한지역에서의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지로는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제5기층과 제6기층,

회령군 오동유적지, 은성군 동관리 수남유적 위문화층 간도지역의 연길현 신안리 및 신화려유적과 소달구들곽무덤을 들 수 있다.

무산군 범의구석유적은 오늘날의 무산철광산 서쪽 5km되는 성천수가 충적층에 있다. 이곳에는 강기슭의 계곡을 따라 넓은 벌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문화층이 고루 보이는데 철기시대의 것은 제 5, 6기층의 것이다.

5기층에서는 모두 15개의 집자리들이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5개의 집자리에서 철기가 나왔다. 집자리들은 주춧돌을 놓은 다음 기둥을 네줄로 세우고 지은 지상건물자리이다. 철기류는 쇠도끼와 대패, 쇠칼 등이었고 이밖에 쇠조각들과 쇠가 녹은 찌꺼기가 나왔다. 쇠도끼는 자루쪽으로 속이 빈 주머니 도끼이며 대패날은 한쪽이 뾰족한 나뭇잎 모양의 것이었다.

제6기층의 철기는 제5기층의 철기에 비하여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도 많다. 범의구석 17호집자리에서는 도끼 5개, 자귀 1개, 낫 1개, 반달칼 1개, 낚시 4개등과 기타 6개의 쇠조각이 나왔다. 이들 유적은 대체로 기원전 4~3세기의 것으로서 철기생산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철기는 매우 이른 시기의 것으로 지난날 청동기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솟불로 쇠를 녹여서 질 좋은 쇠를 만들어 냈다.

이밖에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유적의 제6호집자리도 우리나라 철기문화의 발생을 시사하는 유적의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두 자루의 쇠도끼와 쇠붙이들이 나왔는데 쇠도끼는 주조한 것으로 주머니 모양의 형태이다.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제5기층보다 약간 빠른 시기의 철기시대 유적으로 길림시 인근 소달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곳의 20여기의 무덤을 발굴한 가운데 청동단추에 쇠를 녹여 붙인 것과 여타 쇠붙이류가 보이는데 이는 범의구석 제5기층유적 보다 빠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철기문화시대의 유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석관묘로 요동반도 여순시 여순구 윤가촌 남하 12호무덤과, 황해도 신계군 정봉리의 것으로 이 무덤들은 장방형의 무덤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관과 부장품을 넣은 다음, 관과 무덤벽 사이에 판들을 세우고 판 위에도 판들을 덮어 돌곽을 만들었다. 돌곽 위에는 돌과 흙을 덮었다. 이같은 석관묘는 그 후 황해도 서흥군 천곡리 무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곽 위에 메꾸었던 돌무지가 없어진 형식으로 변화하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퇴화하여 황해도 봉산군 송산리 솔메골의 돌 돌림 무덤형식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기시대의 집자리들은 지상가옥으로 변모되었는데 유적지는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데 평안북도 영변군 세죽리에서 다섯 채의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이들 집자리바닥은 진흙을 편 다음 다졌다. 기둥은 주춧돌 없이 세웠다. 집자리들은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보통 30㎡ 미만이며 극히 작은 것은 10㎡ 미만의 것도 보인다.

이 시기의 구들시설과 화독자리 등이 요녕성 무순시 연화보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기원전 3~2세기에 해당하는 토성유적 4곳이 발견되었는데 이 토성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의 어울동토성, 황해도 은률군 운성리의 운성리토성, 황해도 신천군 청산리의 청산리토성, 함경남도 금야군 용강리의 소라리토성 등으로 지형적으로 평야지대의 약간 둔덕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둘레는 400~500m 정도의 장방형이다. 이들 성터부근에서는 검, 창끝과 활촉, 비수, 좁은놋단검이 발견되었다.

좁은 놋단검은 이전의 비파형단검을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날이 좁아졌고 질이 좋아져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와 병행하여 좁은 놋창끝도 발굴되었다.

이밖에 농업 및 생활용구로 쇠도끼, 쇠자귀, 쇠낫, 쇠삽, 쇠호미, 쇠괘이, 쇠칼 등도 나왔다. 수레용 부속품으로는 수레명에대, 수레굴대끝, 마구리, 일산살꼭지, 을자형기 말자갈 등이 보였으며 장식품으로는 놋거울이 나왔다. 이 거울의 특징은 무늬의 섬세성과 꼭지가 2개 또는 그 이상이다. 이 시기의 합금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이 가해졌는데 예컨대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견된 놋단검의 합금비율은 동(銅)이 73.14%, 석(錫)이 19.77%, 연(鉛)이 6.39%이고 황해도 봉산군 솔매골 놋단검은 동 40.55%, 석 18.3%, 연 7.5%, 아연 24.5%이다. 이러한 배합비율은 검이나 도끼의 경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수치로 알려지고 있어 당시의 합금술 수준을 가늠케 한다.

잔줄무늬거울은 단검이나 도끼와는 달리 합금비율을 하고 있는데 황해도 봉산군 솔매골에서 나온 이 거울은 동 42.91%, 석 26.7%, 연 5.56%, 아연 7.36%이며 함경북도 나진읍 초도에서 나온 것은 동 53.93%, 석 22.3%, 연 5.11%, 아연 13.7%의 배합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에서의 철기시대 유물의 발견은 강소성 육합에서 춘추시대 후기에 속하는 오나라의 묘 가운데서 한 점의 철기가 발견되었는데 녹이 심하게 나고 산화가 심해 유물의 모양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이밖에 장사와 연하지방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열하의 홍릉현에서는 철제품과 함께 철기를 만드는데 쓴 거푸집이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지역에서는 미누신스크 부근의 예니세이강 상류에 있는 따가르섬에서 나온 것으로는 검과 활촉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검과 활촉은 모두 청동제품인데 간혹 철제날에 청동제 자루가 달려 있거나 청동제날에 철제자루가 달려있다. 이 지역의 철기시대는 타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청동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동과 주석의 원료가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7. 유적발굴조사년표

1) 북한지역 주요 발굴·유적 조사년표

발굴년도	발굴 유적명	유적소재지	유적지 시대구분	출판물명
1949	라진 초도 원시 유적	함경북도 라진군 초도	청동기시대	라진 초도 원시 유적 발굴보고, (유적 발굴 보고 제1집)
1949	안악 제 1, 2호 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고 구 려	안악 제1호 및 제2호분 발굴보고(유적 발굴보고 제4집)
1949	안악 제 3호 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류설리	고 구 려	안악 제3호분 발굴 보고(유적 발굴 보고 제3집)

1953	요동성 무덤	평안남도 순천군 용봉리	고 구 려	평안남도 순천군 룡봉리 도룡상동 조사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1집
1953-57	원산시 중평리	강원도 원산시 중평리	청동기시대	원산시 중평리 유적, (문화유산) 1958년 6호
1954-55	회령 오동 원시 유적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	청동기시대	회령 오동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 발굴 보고 제7집)
1954	황주군 순천리 유적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청동기시대고구려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상동 유적 조사 정리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4	운성리 토광 무덤	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고조선시기 고구려시기	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토광묘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1집
1954	온산 남옥리 무덤	평안남도 온산군 남옥리	고 구 려	평안남도 온산군 남옥리 고분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4	대청리 1호 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고 구 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1호분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1집
1954	평양 역전 주칸 무덤	평양시 외성 구역 역전동	고 구 려	평양 역전 2실분 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1집
1955	금탄리 원시 유적	평양시 승호 구역 금탄리	신석기 말 청동기시대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 발굴 보고 제10집)
1955	공귀리 원시 유적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	청동기시대	강계시 공귀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6집)
1955	원암리 원시 유적	평양시 강남군 원암리	청동기시대	강남 원암리 유적 발굴 보고, (문화유산) 1958년 1호
1955	자강도 내 원시 및 고대 유적	자강도 중강군, 시중군, 강계시	청동기시대	자강도 내 원시 유적 및 옛날돈이 발견된 유적, (문화유산) 1958년 5호
1955	전천읍 명도전 유적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고조선시기	자강도 전천 출토 명도전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7년 1호
1955	천주리 토광 무덤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	고조선시기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 한발굴 토광묘 조사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5	대안리 제1호 무덤	평안남도 룡강군 대안리	고 구 려	평안남도 룡강군 대안리 제1호묘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5	선봉리 1호 무덤	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	고 구 려	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 1호묘 발굴 정리 보고, (고고학 자료) 제2집
1956	천진 농포리 원시 유적	함경북도 천진시 농포리	신석기시대	천진 농포리 유적 발굴, (문화유산) 1957년 4호

1956	상매리 들상자 무덤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리	청동기시대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리 석 상묘 조사 보고, (고고학 자 료집) 제2집
1956	갈현리 토광 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고조선시대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 동 토광묘 유적 조사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6	화성리 쌍곽 무덤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고 구 려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쌍곽 분 정리 보고, (고고학 자료 집) 제1집
1956	가장리 벽화 무덤	평안남도 증산군 가장리	고 구 려	증산군 가장리 벽화 고분 정 리 간략 보고, (문화유산) 1959년 2호
1956	공민왕 현릉	개성시 개풍군	고 려	고려 공민왕 현릉, 9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7	지탑리 원시 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지탑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8집)
1957	두만강 유역과 동해 안 일대 원시 유적	함경북도 영안군 청진시 회령군,유선군, 종성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두만강 유역과 동해안 일대의 유적조사, (문화 유산) 1957년 6호
1957	태성리 무덤떼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태성리 고분군 발굴 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5집)
1957	박천군 덕성리 벽돌무덤	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고 구 려	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문 화유산) 1954년 5호
1957	태성리 유적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태성리 저수지에서 발견된 유 물·유적 (문화유산) 1958년 2, 3호
1957	태천군 용산리 산성	평안북도 태천군 용산리	고 구 려	용오리 산성
1957	안변군 용성리 신라무덤	강원도 안변군 용성리	신 라	안변 용성리 고분 발굴 보고, (문화유산) 1958년 4호
1958	시중군 심귀리 원시 유적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청동기시대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원시 유적 발굴 중간 보고, (문화 유산) 1961년 2호
1958	어지돈 지구 원시 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은파군, 황주군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1958년 어지돈 지구 관개공사 구역 유적 정리, (문화 유산) 1959년 12호
1958	석천산 동록 고인돌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청동기시대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동록 의 고인돌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8	신흥동 팽이그릇 집자리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읍	청동기시대	신흥동 팽이그릇 집자리, (고 고민속) 1964년 3호
1958	송산 돌돌림 무덤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고조선시대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솔피 골 돌돌림무덤, (고고학 자료 집) 제3집

1958	신창군 하세동리 고조선 유적	함경남도 신창군 하세동리	고조선시기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 (고고 민속) 1963년 1호
1958	평안북도 내 유적	평안북도 용천군 쌍학리	고조선시기	평북 지방에서 발견된 원시유 적, (문화유산) 1958년 4호
1958	약수리 벽화 무덤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고 구 려	약수리 벽화 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8	태성리 고구려 무덤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고 구 려	강서군 태서리저수지 내부지 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8-61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	평양시 대성구역	고 구 려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 발굴 보고) 제9집
1958	홍천군 구읍리 신라 무덤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신 라	통천군 구읍리 이은골 신라무 덤에 대하여, (문화 유산) 1962년 4호
1959	미송리 동굴 유적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신석기시대 고조선시기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9	석교리 원시 유적	황해남도 룡연군 석교리	청동기시대	황해남도 룡연군 석교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고고학 자 료집) 제3집
1959	복사리 원시 유적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청동기시대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원시 집자리, (고고학 자료집) 제3 집
1959	미림 설바위 원시 유적	평양시 자동 구역 미림리	청동기시대	미림 설바위 원시 유적 정리 보고, (문화유산) 1960년 3호
1959	무산 범의구석 원시 유적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신석기시대 청 동 기 시 대 초기철기시대	무산읍 범의 구석 원시 유적 발굴 중간 보고(문화유산) 1960년 1호
1959	황해남도 북부지방 원시 유적	황해남도 온천군, 송화군, 은틀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황해남도 북부지방 유적 답사 보고, (문화유산) 1961년 6호
1959	심촌리 긴동 고인돌	황해북도 황주군 심촌리	청동기시대	황해북도 황주군 심촌리 긴동 고인돌,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9	평안북도 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벽동군, 용천군	청동기시대	평안북도 벽동군 송련리와 통 천군 왕산 원시 유적 답사 보 고, (문화유산) 1962년 1호
1959	연산군 공포리 무덤때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청동기시대 고 구 려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무덤 때 발굴 간략 보고, (문화유 산) 1962년 1호
1959	부덕리 토광 무덤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 리	고조선시기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9	만경대 토광 무덤	평양시 만경대 구역 만경대리	고조선시기	만경대 토광 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9	복사리 토광 무덤과 독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고조선시기	복사리 망암동 토광 무덤 독 무덤,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9	자성군 일대 고구려 무덤	자강도 자성군	고구려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법동 리, 소암리 고구려 고분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60	복사리 벽화 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고 구 려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벽화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	우진리 벽화 무덤	평양시 중화군 우진리	고 구 려	전동명왕릉 부근벽화 무덤, 9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	불일사지	개성시 관문군 선적리	고 려	불일사지, (고고학 자료집) 제 3집
1960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황해남도 평천군 봉암리, 웅진군 온동리	고 려	황해남도 고려 자기 가마터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63	굴포리 조개무지	함경북도 옹기군 굴포리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서포항조개 발굴 중간 보고, (문화유산) 1961년 3호
1960	해주시 용당리 무지	황해남도 해주시 용당리	신석기말 청동기시대초	해주시 용당리 조사 보고(고 고학 자료집), 1963년 1호
1960-61	토성리 원시 및 고대 유적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 구 려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 유적 발굴 중간 보고, (문화 유산) 1961년 5호
1960	장정리 원시 및 고대 유적	자강도 중간군 장정리	고 구 려	중강군 장정리 유적 조사 보 고, (문화유산) 1961년 6호
1960	묵방리 고인돌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청동기시대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 돌 발굴 중간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	김책군 덕인리 고인돌	함경북도 김책군 덕인리	청동기시대	함경북도 김책군 덕인리(고인 돌) 정리 보고, (문화유산) 1961년 3호
1960	팔청리 벽화 무덤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	고 구 려	대동군 팔청리 벽화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1	평안북도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박천군, 녕변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평북도 박천군, 녕변군이 유 적조사 보고, (문화유산) 1962 년 5호
1961	와산동 팽이그릇 유적	평양시 서성 구역 와산동	청동기시대	평양시 서성 구역 와산동 팽 이 그릇 유적 조사 보고, (문 화유산) 1961년 6호
1961	용산리 토광 무덤	평양시 만경대 구역 용산리	고조선시기	용산리 고분 정리 보고, (문 화유산) 1962년 4호
1961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상자 무덤	강원도 철원군 내문리	고 려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상자 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년 5호

1962	화대군 장덕리 원시 유적	함경북도 화대군 장덕리	구석기시대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맘모스) 유골 발견, (문화유산) 1962년 2호
1962	세죽리 원시 및 고대 유적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세죽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 (고고 민속) 1964년 2호
1962	평안북도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일대 유적 조사 보고, (문화유산) 1962년 1호
1962	입석리 원시 유적	평양시 승호 구역 입석리	청동기시대	평양시 승호구역 입석리 원시 유적 발굴 간략 보고, (문화유산) 1962년 4호
1962	평안북도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선천군, 정주군	청동기시대	선천군 원봉리 및 정주군 석산리 원시 유적 답사 보고, (고고민속) 1964년 1호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도에 있는 벽화 무덤

번호	무덤 이름		소재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8·15이전 사용 명칭	
1	남경리 1호 무덤	남경리 1호 무덤	평양시 승호구역 삼경리
2	평양 역전 벽화 무덤	평양 역전 분	평양시 화성구역 련화동
3	고산리 1호 무덤	고산리 1호 분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
4	고산리 9호 무덤	고산리 9호 분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
5	호남리 사진 무덤	호남리 사진총	평양시 대성구역 호남리
6	개마 무덤	개마총	평양시 대성구역 로산리
7	내리 1호 무덤	내리 1호분	평양시 대성구역 로산리
8	진파리 1호	진파리 1호분	평안남도 중화군 무진리
9	진파리 4호	진파리 4호분	평안남도 중화군 무진리
10	가장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중산군 가장리
11	요동성 무덤	요동성 총	평안남도 순천군 용봉리
12	천왕지신 무덤	천왕 지신총	평안남도 은산군 북산리
13	강서 큰 무덤	강서대묘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
14	강서 중 무덤	강서중묘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
15	약수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16	대보산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강서군 대보산리
17	태성리 1호	태성리 1호 묘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18	태성리 2호 무덤	태성리 2호 묘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19	연꽃 무덤	연화총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20	쌍기둥 무덤	쌍영총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21	룡강 큰 무덤	룡강대묘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22	대안리 1호	대안리 1호분	평안남도 온천군 대안리
23	수렵 무덤	수렵총	평안남도 온천군 화오리
24	별 무덤	성 총	평안남도 온천군 신당리
25	감신 무덤	감신총	평안남도 온천군 신당리
26	마영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온천군 마영리
27	안악 1호 무덤	안악 1호분	황해남도 대추리
28	안악 2호 무덤	안악 2호분	황해남도 대추리
29	안악 3호 무덤	안악 3호분	황해남도 복사리
30	복사리 벽화 무덤	(명칭무)	황해남도 복사리

중국 즈안현에 있는 고구려 벽화 무덤

번호	무덤		소재지
	현재	이름 과거	
1	씨름 무덤	각저총	중국 즈안현 여산 남쪽
2	무용 무덤	무용총	중국 즈안현 여산 남쪽
3	삼련화 무덤	산련화총	중국 즈안현 여산 남쪽
4	3실 무덤	3실총	중국 즈안현 여산 남쪽
5	통구 사신 무덤	통구 사신총	중국 즈안현 여산 남쪽
6	동근 무늬 무덤	환문총	중국 즈안현 아양 어두
7	모두루 무덤	모두루 총	중국 즈안현 아양 어두
8	구갑 무덤	구갑총	중국 즈안현 산성사
9	미인 무덤	미인총	중국 즈안현 산성사
10	통구 미편호 무덤	통구 미편 호분	중국 즈안현 산성사
11	통구 제17호 무덤	통구 제17호분	중국 즈안현 대왕촌
12	통구 제18호 무덤	통구 제18호분	중국 즈안현 대왕촌
13	통구 제20호 무덤	통구 제20호분	중국 즈안현 대왕촌

中國東北地域主要遺蹟發掘調查年表

中國東北地域主要遺蹟發掘調查年表

考學= 考古學報

文參= 文物參考資料

考訊= 考古通訊

發掘調查年度	遺 跡 址	發掘·調查者	報 告 書 名	揭載誌名及號數
1948	吉林西團山子	吉林大學	吉林西團山子石棺墓發掘記	考古 1960 4號
1949	義縣清河門遼墓	李文信	義縣清河門遼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54 6號
1950	義蘭倭肯哈達洞穴	李文信	依蘭倭肯達的洞穴	考古學報 1954 7號
1953	吉林郊外騷達溝西團山子	康家興	吉林市郊外發現新石器時代遺物	文物參考資料 1954 3號
1953	吉林市郊土城子	吉林城文化局等	吉林第四區土城子發現重要的新石器時代遺址	文物參考資料 1954 9號
1953	汪清縣百草溝	王亞洲	吉林汪清百草溝古墓葬發掘	考古 1961 8號
1953	汪清縣百草溝	王亞洲	吉林汪清縣百草溝遺址發掘簡報	考古 1961 8號
1954	西喇木倫河流域	汪宇平	西喇木倫河流域的新石器時代遺址	考訊 1955 5號
1954	遼陽唐戶屯	沈欣	遼陽唐戶屯一帶的漢墓	考訊 1955 4號
1954	吉林市郊土城子	康家興	吉林江北土城子附近古文化遺址及石棺墓	考訊 1955 創刊號
1954	遼陽三道溝	陳大為	遼陽三道溝兒童寶棺墓群發掘簡報	考訊 1956 2號
1954	營城子	于臨祥	營城子貝墓	考學 1958 4號
1955	旅順市三溝區古墓	于臨祥	旅順市三溝區墓葬清理簡報	考訊 1957 3號
1955	長春伊通河畔遺跡	王雅周	在長春伊通河畔的田野考古調查	文參 1956 11號
1955	凌源縣海島營子村	熱河城博物館籌備組	熱河凌源縣海南島營子村發現的古代青銅器	文參 1955 8號
1956	撫順市前屯汪潭木	王增新	遼寧撫順市前屯汪潭木高句麗墓發掘簡報	考古 1961 10號
1956	遼寧寺几堡·大伙房	孫守道 徐秉現	遼寧寺几堡等地青銅短劍與大伙房石棺墓	考古 1964 6號
1956	吉林梨樹縣偏臉城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吉林省梨樹縣偏臉城址調查	考訊 1958 3號
1956	赤峯紅山	呂遵諤	內蒙赤峯紅山考古調查報告	考學 1958 3號

1956	桓仁縣遺跡	陳大為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960 1號
1956	遼陽縣金廠石墓	王增新	遼寧朝陽金廠遼象畫石墓	考古 1960 2號
1956	西豐縣西岔溝古墓	孫守道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 8,9號
1956	朝陽燒戶營子村南華村	劉謙	遼寧朝陽兩處新石器時代遺址	考訊 1956 6號
1956	建平, 新民遼墓	水謙	遼寧省建平, 新民的三座遼墓	考古 1960 2號
1956	通化市江口村, 東江村遺跡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吉林通化市江口村和東江村考古發掘簡報	考古 1960 7號
1957	嫩江下游遺跡	黑龍江省博物館	嫩江下游左岸考古調查簡報	考古 1960 4號
1957	遼陽市棒臺子	王增新	遼陽市棒臺子二號壁畫墓	考古 1960 1號
1957	肇東縣哈喇城古墓	王修治	黑龍江肇東縣哈喇城古墓清理簡報	考古 1961 7號
1957	賓縣老山頭遺址	趙善桐	黑龍江賓縣老山頭遺址探掘簡報	考古 1962 3號
1957	旅大市營城子古墓	許明綱	旅大市營城子古墓清理	考古 1959 6號
1957	遼陽縣南雪梅村古墓	王增新	遼寧 遼陽縣雪梅村壁畫墓及石墓	考古 1960 1號
1957	長春市郊新石器時代址	王恒傑	長春市郊新石器時代遺址	考訊 1957 1號
1957	巴林旗細石器遺址	內蒙古自治區文化局文物工作組	昭烏達盟巴林左旗細石器文化遺址	考學 1959 2號
1957	吉林頭道江下游遺跡	李蓮	吉林頭道江下游考古調查簡報	考訊 1959 9號
1957	撫順市蓮花堡	王增新	遼寧撫順市蓮花堡遺址發掘簡報	考訊 1964 6號
1957	安廣縣永合屯遺址	李蓮	吉林安廣縣永合屯細石器遺址調查簡報	文參資 1959 12號
1958	內蒙古昭烏達盟南山根	李逸友	內蒙昭烏達盟出土的銅器調查	文參資 1959 6號
1958	內蒙古昭烏達盟南山根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外	寧城縣南山根的石墓	考學 1973 2號
1958	林東金墓	李逸友	昭盟巴林左旗林東鎮金墓	考古 1959 7號

1958	錦西縣烏金塔古墓	錦州市博物館	遼寧錦西縣烏金塔東周墓調查記	考古 1980 5號
1958	牡丹江中下游遺跡	黑龍江省博物館	牡丹江中下游考古調查簡報	考古 1960 4號
1958	敦化縣敦東城	單麟	渤海舊京城址調查	考古 1960 4號
1958	四平市南郊	趙鳳山	四平市郊發見新石器時代遺址	文物 1959 2號
1958	寧城縣南山根	李逸友	內蒙古昭烏達盟出土銅墓調查	考古 1959 6號
1958	旅順口區后牧城驛古墓	旅順博物館	旅順口區后牧城驛戰國墓清理	考古 1960 8號
1958	錦西大臥鋪石墓	雁羽	錦西大○鋪遼今時代畫象石墓	考古 1960 2號
1958	永吉縣旺起屯石棺墓	劉法祥	吉林省永吉縣旺起屯新石器時代石棺墓發掘簡報	考古 1960 4號
1958	寧安牛場新石器遺址	黑龍江省博物館	黑龍江省寧安牛場新石器時代遺址清理	考古 1960 4號
1958	遼中京西城外古墓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遼中京西城外的古墓葬	文參 1961 9號
1959	寧城縣山劉劉遼墓	寧城縣山劉劉遼墓	昭烏達盟寧城縣山劉仗子遼墓發掘簡報	文參 1961 9號
1959	昭烏達盟尙瞭符墓	鄭隆	昭烏達盟遼尙瞭符墓要收穫	文參 1961 9號
1959	遼中京城	遼中京發掘委員會	遼中京城址發掘的重要收穫	文參 1961 9號
1959	吉林敦化六頂山	王承禮 曹正	吉林敦化大頂山渤海大墓	考古 1961 6號
1959	吉林九臺上河灣	吉林省文化局 群眾文化處	吉林九臺上河灣考古調查	考古 1961 3號
1959	前敦扶余德惠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吉林省前敦扶余德惠考古調查	考古 1961 1號
1959	扎賓贊爾古墓	鄭隆	內蒙古扎賓諾爾古墓群調查	文參 1961 9號
1959	長海縣貝丘	旅順博物館	旅大市長海縣新石器時代貝丘遺址調查	考古 1961 12號
1960	長海縣貝丘	旅順博物館	旅大市長海縣新石器時代貝丘遺址調查	考古 1962 7號

1960	大安縣東山頭	吉林省博物館	吉林大安東山頭古墓葬清理	考古 1961 8號
1960	昭烏達盟石羊石虎山	內蒙古自治區昭達盟文物公作站	內蒙古昭烏達盟石羊石虎山新石器時代墓葬	考古 1963 10號
1960	敕漢旗盟克河上游遺址	內蒙古自治區昭達盟文物公作站	內蒙古敕漢旗孟克河相游的遺址調查	考古 1963 10號
1960	扎賓諾爾古墓	內蒙古文物工作隊	內蒙古贊賓諾爾古墓發掘簡報	考古 1961 12號
1960	亦峯葯王廟 夏家店遺址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亦峯葯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 2號
1960	亦峯葯王廟 夏家店遺址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亦峯葯王廟 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學 1974 1號
1960	寧安縣大牡丹屯	黑龍江省博物館	黑龍江寧安大牡丹屯發掘報告	考古 1961 10號
1960	嫩江沿岸遺址	黑龍江省博物館	嫩江沿岸細石器文化遺址調查	考古 1961 8號
1960	吉林鎮賓縣遺址	吉林省博物館	吉林鎮賓縣細石器文化遺址	考古 1961 8號
1960	承德地區遺跡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承德地區的古文化遺址調查	考古 1962 12號
1960	巴林左旗南楊家營子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內蒙古巴林左旗南楊家營子的遺址和墓葬	考古 1964 1號
1961	巴林左旗前後昭廟	李逸友	內蒙古巴林左旗前後昭廟的遼代石	文參 1961 12號
1961	陳巴爾虎旗完工索木	翟行榮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索木發現古墓群	考古 1962 11號
1961	陳巴爾虎旗完工索木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古墓清理簡報	考古 1965 6號
1961	旅大市貝丘	安志敏	記旅大市的兩處貝丘遺址	考古 1962 2號
1961	朝陽金代墓	遼寧省博物館	遼寧朝陽金代壁畫墓	考古 1962 4號
1961	扶余縣 賓全墓	吉林省博物館	吉林省扶余縣的一座遼金墓	考古 1963 11號
1961	昭烏達盟寧城縣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	寧城縣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學 1975 1號
1962	吉林兩羊山	張忠培	吉林兩羊山遺址發掘報告	考學 1964 1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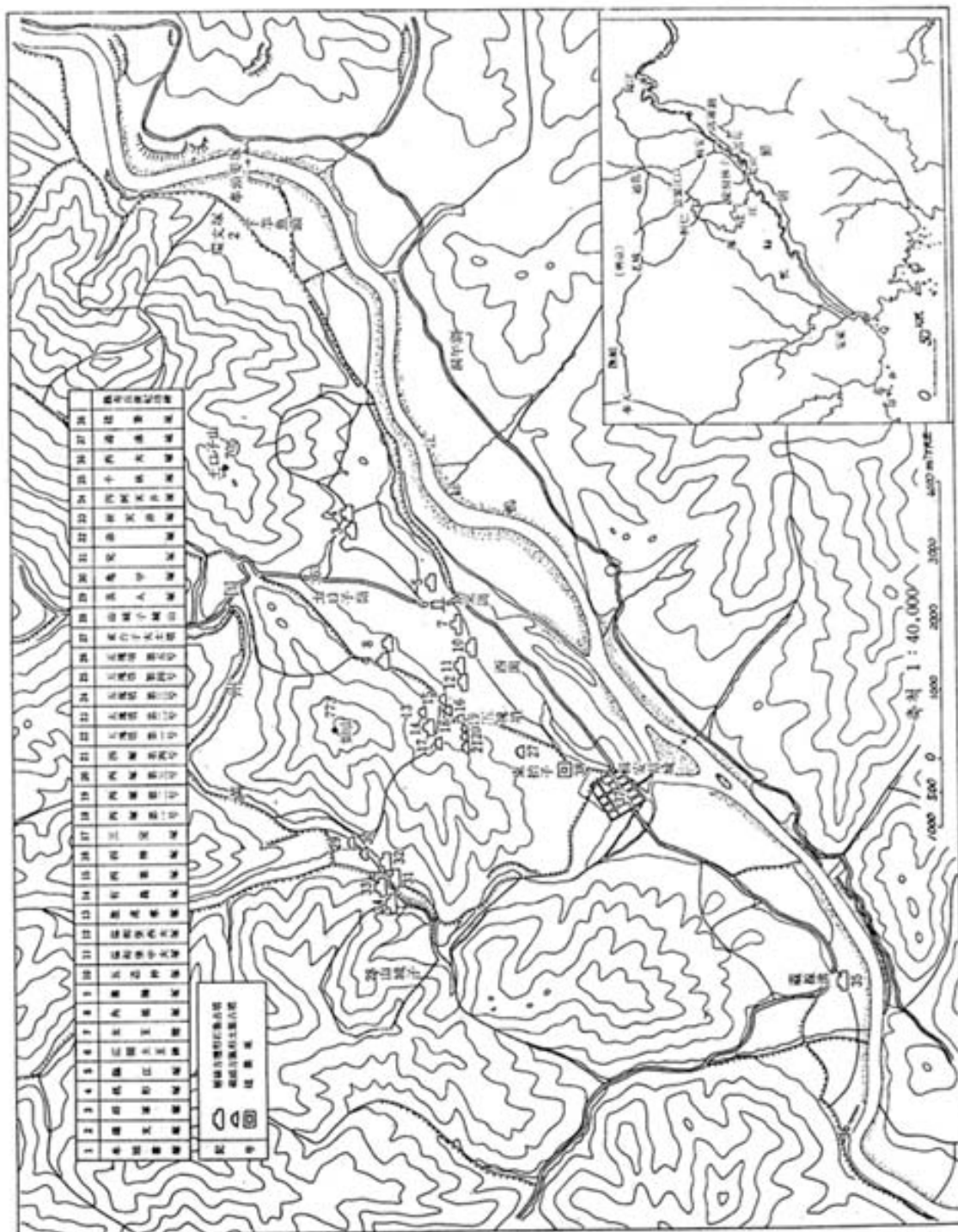
1962	梨樹縣倫古古城址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吉林梨樹縣倫古古城復查記	考學 1963 11號
1962	巴林左旗雙井溝遼墓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內蒙古昭盟巴林左旗雙井溝遼火葬墓	考學 1963 10號
1962	巴林左旗富河溝門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	考學 1964 1號
1963	瀋陽伯官屯	瀋陽市文物工作組	瀋陽伯官屯漢魏墓葬	考學 1964 11號
1963	輯安縣麻線溝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吉林輯安麻線溝一號壁畫墓	考學 1964 10號
1964	新巴爾虎左旗遺址	蓋山林	黑龍江新巴爾虎旗細石器文化遺址調查	考學 1972 4號
1965	農安縣萬全	劉振華	農安萬全塔基礎文物	考學 1973 8號
1965	北票縣西官營子	○瑛渤	遼寧北票縣官營子北燕漢素弗墓	考學 1973 3號
1965	瀋陽鄭家洼子	瀋陽故宮博物館	瀋陽鄭家洼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學 1973 3號
1971	懷德縣大青山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吉林懷德大青山發現青銅短劍	考古 1974 4號
1971	饒河縣小南山	黑龍江省博物館	黑龍江饒河小南山遺址試掘簡報	考古 1973 2號
1971	永吉縣楊屯遺址	劉振華	永吉楊屯遺址試掘簡報	考古 1973 8號
1971	大安縣安永合屯	陳逸	跋吉林大安出土契丹文銅鏡	考古 1973 8號
1971	和龍縣八家子	郭悻魁	和龍渤海古墓出土的幾件金飾	考古 1973 6號
1972	朝陽鎮北塔付近	朝陽地區博物館	遼寧朝陽唐輯貞墓	考古 1973 6號
1972	哲里木盟庫倫旗王墳梁	吉林省博物館哲里木盟文化局	吉林哲里木盟庫倫旗一號遼墓發掘簡報	考古 1973 8號
1972	承德縣深水河村	鄭紹宗	承德發現的契丹符牌	考古 1974 10號
1973	喀左縣北洞村	遼寧省博物館 朝陽地區博物館	遼寧喀左縣北洞村出現殷代青銅器	考古 1974 4號
1973	喀左縣北洞村	遼寧省博物館 喀左縣文化館	遼寧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 1974 6號

3. 輯安地域道路分布

如山(椴山)区 (773 m)										土口子山区 (705 m)					地											
										區(等高線)					主要道路表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東台子大土墳	五号	四号	三号	二号	五塊墳一号	四号	二号	二号	四塚第一号	三室塚	四神塚	四葉塚	有倉塚	散連華塚	溫和堡西大塚	溫和堡中大塚	五道神塚	無跡塚	角抵塚	太王陵	広開土王碑	臨江塚	柵形塚	將軍塚	環文塚	車頭樓塚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土築	石築	石築	石築	石築	土築	土築	石築	石	石	石	石	土築	土築
五三・〇	三〇・〇	二一・〇	二二・〇	二一・〇	二八・〇				二七・三	一九・七	二七・二七	五一・〇		六・一		三八・〇	二	一五・二	一四・二	六四・二	一・五	六〇・〇	九・一	三〇・九	一八・二	一八・二 m
五三・〇	七・〇				六・〇				五・五	四・四	七・七			三・〇	?		三・六	?	?	現一三・六	六・二		四・五	一三・六	三・〇	三・六 m
				西向					西向	南向										西向					西南向	西南向
	壁面									壁面			壁面						壁面						壁面	壁面

小分區	通野		麻線溝		山城子山区						地 區(等高線)	
	千	百	千	百	下 流 城	"	"	"	"	"		山 下 南
山中	(100~200)	(100)	(100~200)	(100)	"	"	"	"	"	"	(100)	(100~200)
板石嶺	東拾子	輯安	"	麻線溝	"	"	"	山城子	"	"	"	山城子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地名
龍形土堆	建築址	通溝城	西大塚	西大塚	四阿天井塚	圻天井塚	弟塚	兄塚	龜甲塚	美人塚	山城子城山	名稱
石碑	礎石	石築	"	石築	"	"	"	石築	"	土築	石築	種類
斷片	"	方形	"	"	"	"	"	層級方壇形	"	截頭方錐形	不正四角形	形狀
			四九·七〇	五七·五九		一一·二一	一九·六	一一·七			四約八	基辺(約)
		現五·二	現四·二					?			城壁三·五	高(約)
						"	"	西南向				羨門
										"	壁面	備考

P363



그림

8. 맺는말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사료의 빈곤과 고고학분야의 취약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제약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가 분단된 상황하에서도 남북한 양측은 우리나라 고대사분야의 공백을 메꾸는데 상당한 비중을 둘 수 있는 유적유물들을 발굴하였다. 물론 이들 발굴물들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의와 학문적 차원에서 공감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한성을 수반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지난날 일본인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한민족사의 과소평가 내지 왜곡된 역사적 기술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한반도에는 선사시대 초기부터 인류의 생활터전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물 유적이 발굴되어 지난날 한반도에 구석기시대가 없어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대륙북쪽과 동남아시아로부터 이주되어온 문화라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중석기시대는 기상조건 악화로 폭우가 자심한 가운데다 주민의 이동이 빈번했던 관계로 유적지나 유물의 유실이 매우 심했음에도 남한지역에서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의 구석기시대 중기의 문화층과 북한지역에서의 함경북도 웅기군 부포리 유적과 온성군 내 지경동유적지에서 당시의 유물들을 발견하였다.

기원전 5천년 내지 4천년 전반기에 속하는 신석기시대의 유물로는 굴포리 서포항유적 제1기층과 제2기층의 부포리 덕산유적, 평남의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아래문화층,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유적 제1지구 문화층 등지에서 농경문화의 정착과 가축사육, 수렵 및 어업용구, 질그릇 제작의 발전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 신석기시대의 질그릇 새김무늬에 대해 일본학자들은 시베리아지역 산물의 아류라고 하면서 한반도권내의 독자적 문화발전상을 부인해 왔으며 일부 구라파 계통의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문화이동론을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시베리아지역의 빗살무늬 그릇은 이미 농경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진일보한 우리나라의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제작년대도 훨씬 후기의 것이며 또한 이들의 질그릇은 유목과 수렵을 기본으로 한 생성물인 것이다.

청동기 및 철기시대에 관해서도 일본 관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청동 및 금속문화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강변하면서 우리나라 고대사의 기원을 깎아 내리고자 급급하였다. 그러나 일본 금속문화의 초기단계인 기원전 3~2년경(年頃)부터 시작된 야요이 문화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광복이후 국토분단 상황하에서도 구석기초기 시대로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관련유적의 발굴실적은 괄목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굴실적이 우리민족의 고대사복원과 아울러 이 분야의 남북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은 물론 나아가서 국토통일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 본고를 엮어 보았다.

참고문헌

1. 都宥浩, 朝鮮原始考古學, 1960.
2. 三宅俊成, 東北アジ?考古學の 研究, 日本圖書刊行會, 1975.
3. 朱榮憲, 高句麗壁畫墳의 編年に 關する研究, (永島揮臣憤?; 高句麗の壁畫古墳, 1972.
4. 金用南·金用珩·黃基德, 我國原始住居址の 研究, 1975.
5. 上原之節等·滿洲考古學概說, 1944
6. (中國) 考古學報 1950年 以後分
7. (中國) 文物參考資料, 1953年 以後分
8. (中國) 考古通訊 一部分, 年代不明.
9. (中國) 燕京學報 一部分, 年代不明.
10. (北韓)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羅津草島原始遺跡發掘報告, 1955.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弓山原始遺跡發掘報告, 1957.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台城里古墳發掘報告, 1959.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江界市公貴里原始遺跡發掘報告, 1959.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會寧五洞原始遺跡發掘報告, 1959.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智塔里原始遺跡發掘報告, 1960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金란里原始遺跡發掘報告, 1964.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大洞江流域古墳發掘報告, 1958.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美松里洞窟遺跡發掘報告, 1963.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黃海道鳳山郡松山里솔피골 古墳發掘報告, 1963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伏獅里望岩洞土壙墓와 甕棺, 1963.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祥原黑隅里旧石器時代遺跡發掘報告, 1974.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龍淵里遺跡發掘報告, 1974.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琵琶形短劍과 細形短劍關係遺跡遺物, 1974.
科學院考古學及民俗學研究所編 咸鏡南道一帶古代遺跡調查報告, 1974.
11. 문화유산 1957~1962년분
고고민속 1963~1967년분
12. 역사과학 1960년대분
13. 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 高句麗文化 1975.
14. 加藤晋平, 東シベリア 極東における 旧石器 中石器時代の 若干の 問題, 史流 7, 1966.
15. 아·뻬·오플라드니코브, 1956년도 연해주에서의 고고학 연구, 소련 과학원 원동지부
통보 제8권, 1956.
16. 아·뻬·오플라드니코브, 원동인민들의 문화발원지 월가강에서부터 태평양까지 1954.
17. 에·웨·싸브꾸노브, 연해주지방에서의 중세기 화폐의 새로운 발견, 동방금석학, 1955. 10호.
18. 極東における 土器の起源, 歴史教育, 17-8, 1969.
19. シベリア旧石器研究の近況, 具塚 3, 1969.
20. 先土器時代の 歴史性と地域性, 郷土史研究と 考古學, 1970.